

축산물 정보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마침내 실현

- 지난 11월 18일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인의 오랜 염원인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가 마침내 이루어졌다. 국회는 지난 11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축산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축산물 가공업무 농림부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생산부터 도축, 가공,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법개정에 따라 축산물 위생처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으며,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본회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축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집행부는 물론, 각 도 협의회와 지부에서 지역구 의원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끝에 국회 법사위 법안 심의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의결, 상정한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고, 17일에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됨에 따라 1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

사위 심의에서 보류돼 반송조치 되었다.

지난 85년 7월 축산물 가공 관리 업무가 보건사회부로 이관된 이후 본회를 비롯 농민단체에서는 축산물 가공 관리 업무를 농림부로 재이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95년 3월에는 본회를 비롯 37개 축산관련 단체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 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행쇄위는 올해 2월 28일 농민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농림부로 일원화 할 것을 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 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었으며, 지난 7월 11일에는 236개 농민단체가 155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농림해양수산위는 11월 10일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제2회 「농업인의 날」행사 성료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오전 농촌진흥청(수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 이호계 농림부장관, 김태식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협 등 생산자단체장과 4-H대표, 농업인 대표 등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김대통령은 처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농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농업

과 더욱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2단계 농정 개혁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의 정석조씨(쌀), 전북의 김상민씨(사과)의 성공사례 발표가 있는 후 원철희 농협중앙회장(금탑산업훈장), 정영일 서울대교수(국민훈장 모란장), 강춘성 농민단체협의회회장(동탑산업훈장)등 총 78명 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거행되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농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9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서 농업인의 날을 전후한 2주를 「농업인 주간」으로 설정하고 4-H 50주년 중앙경진대회, 우리 농림수산물대축제,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여 도시인과 농업인이 함께 어우러져 기쁨을 나누도록 하게 된다.

한국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 12월 출범

-내년 3월부터 실무 준비 착수

(가칭)한국축산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해 분회 노영한 전무를 비롯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 축산 시설환경기계협회의 실무추진위원들은 지난 11월 3일 모임을 갖고 '99년에 개최하기로 한 행사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축산박람회의 명칭을 "99 한국축산박람회"로 하기로 했으며, 박람회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로 정했다. 참석자들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겸 양계협회 고문인 오봉국씨를 한국축산박람회 추진위원장으로 하기로 했으며, 위원 위촉시기는 오는 12월중에 하기로 했다. 위원회 활동은 내년 3월 15일부터 하기로 했다. "99 한국축산박람회"의 대회장은 분회 전동용 회장과 김남용 낙농육우협회장, 최준구 양계협회장, 심상무 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장

등 4인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한국 축산박람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공동주최 4개 단체의 전무(협회 상근 실무 책임자)들이 맡기로 했다.

축분비료에도 보조금 지급해야

-축분자원화협의회 심포지움서 제기

-축분자원화축진법 제정 시급

(사)가축분뇨자원화협의회(회장 : 정영채)는 "환경축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월 6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은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원이 아닌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토양을 기름지게하는 자원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뿐 아니라 악취도 해결하는데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축분퇴비의 품질을 제고시켜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일반 유기질비료와 차별화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농림부 축정과 서성배과장은 양축농가들이 가축분뇨처리업체 선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체시공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축사신축 및 개축농가에게는 분뇨처리시설자금을 병행 지원함은 물론 규제강화에 따른 신규 시설설치농가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시설이 단계적 교체지원을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서과장은 또 경종농가들이 양질의 축분퇴비를 선택 구매할 수 있고 축분생산농가와 경종농가간 정보교환 및 구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축협 및 농협에 유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인축협 홍재구 조합장은 "축산현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화학

비료의 판매차액 보전을 4천억원 상당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분퇴비에 대한 보전은 전혀 없었다며, 이로 인하여 축분퇴비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나 농가 단체등에서는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축분퇴비도 정부의 보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였다.

■ 경남 거창 신축돈사 2곳 연거푸 화재 발생

- 화재로 인한 피해 주의해야

경남 거창군에 소재한 양돈장 2곳에서 3일 간격으로 연거푸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의 박한열씨는 지난 10월 27일 새벽 육성돈사에 화재가 발생해 700여두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3일후인 지난 10월 30일에는 거창군 주상면의 박대열씨 농장 분만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180두의 모돈과 포유자돈, 이유자돈 등이 폐사했다. 이 화재로 인하여 분만사 옆동에 있는 육성돈사에 전기마저 끊겨, 배기팬이 작동을 안하는 바람에 육성돈 150두가 질식사 하는 사고까지 당하게 되었다. 이들 두 양돈장은 금년초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 11월에 비육돈 출하를 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화재의 원인을 전기 과부하에 의한 합선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한열씨와 박대열씨는 밤에는 전기사용량이 낮아 전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똑같은 업체가 같은 시기에 화재가 발생했던 점을 들어 전기 배선 설치때 불량시공으로 인한 원인이 크지 않겠냐며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 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박대열씨는 화재가 일어난 농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원인 감식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조만간 정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돈사 뿐만 아니라 양계장에서도 화재가 빈발하고 있어 양축농가들의 철저한 화재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축사를 시공할 때는 사전에 전기사용량을 충분히 산정하여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을 신청해야 하고, 허가업체에 전기시공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규격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7일에는 경남 창녕군 소재 부흥양돈영농조합법인 소유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축사 1개동 4백48평이 모두 타 돈사에서 사육중이던 어미돼지 2백마리와 새끼돼지 8백마리 등 모두 1천마리가 죽는 등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었다.

■ 화약창고 폭발음으로 유산·자돈 폐사 피해

- 충북 보은에서 화약 저장창고 폭발

지난 10월 8일 발생한 한국화약 보은공장의 재료 저장창고 폭발사건으로 인근 양돈장을 비롯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 보은군 내북면에 위치한 한국화약 보은 공장은 군수용 폭약을 제조하는 방위산업체로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지난 10월 8일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재료 저장창고가 폭발하면서 굉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 폭발음은 18km쯤 떨어진 보은읍에서도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폭발음으로 인하여 보은공장에서 직선거리로 3km쯤 떨어진 내북면 법주리의 양돈장에서는 자돈 30두가 폐사하고 유산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장주인 이상욱씨는 지난 10월 8일 저녁 10시 20분쯤 벽에 기대어 TV를 보는 중에 갑자기 굉음이 나며 벽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농장의 자돈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가 일어나고 모돈의 유산증세가 나타나 60마리의 임신돈에 대하여 임신진단을 실시한 결과 21두에서 유산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폭파지점에서 1.5km정도 떨어진 내북면 화전리의 이대희씨 농장에서도 자돈 폐사가 일어났으며, 임신돈에서 유산돈이 발생하고 있고, 발정이 안오는 돼지가 많이 생겼다고 전했다. 인근의 목장에서 한우 17마리가 도망쳐 나가 9마리는 안들어 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화약측 관계자는 폭파음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했으며, 보상해 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제주도, '98년부터 돼지 콜레라 백신 접종 금지

- '98년 하반기에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 계획 - 제주산 돼지고기 150톤 일본수출

제주도는 '98년부터 돼지 콜레라 백신접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24일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대책협의회를 갖고 '98년 하반기에 돼지 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위해 '98년 1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는 타도산 반입가축은 현행 농가계류 후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98년 1월 1일부터 동물검역소(제주지소)계류장에서 계류방역을 실시하여 반입되는 가축의 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돼지 콜레라 항체검사 결과 검사두수의 22%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항원검사에서는 전두수 음성을 나타냈다. 돼지 오제스키병 항체검사 결과는 전두수 음성이었다.

한편 제주도는 수출업체인 탐라유통과 생산자단체인 남제주축협 등이 모두 150톤의 돼지고기를 5억6200만원(엔화 7500만엔)에 일본에 수출키로 현지 수입상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

는 돼지고기는 안심, 등심, 뒷다리이며 냉장육 상태로 수송되기 때문에 신선한데다 맛이 좋아 냉동육인 덴마크산에 비해 품질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는 대일 돼지고기 수출물량을 올해 800톤에서 내년에 2천톤, 2001년에 1만5천 등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올해 돼지고기 수출 5만톤 내외 예상

올해 돼지고기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은 지난 9월말까지 3만7500톤(금액기준 1억7575만달러)이 수출돼 작년 한해동안의 실적 3만7242톤을 넘어섰다.

1·4분기만 해도 부진을 면치 못했던 돼지고기 수출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대만의 구제역발생으로 4월부터 수출물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호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금년도 수출목표치 6만5천톤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4분기중 예상수출물량을 최대한 산정하더라도 1만2천톤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올해 돼지고기 수출은 5만톤 내외에 머물 공산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만의 수출중단 조치로 최대의 호기를 맞았지만 열악한 국내 생산 여건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양돈업, 가장 높은 경쟁력 유지할 것

- 축산 전업농, 향후 축산업 비관 전망

- 그러나 93%가 축산업 지속 표명

축산물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축산전업

농들은 계속 축산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지만 향후 축산업 전망은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협이 지난 10월 한달동안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 97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축산전업 농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산전업농의 93%가 계속 축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축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65%가 어렵게 보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45%가 수익성 불투명, 30%가 수입 축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등의 이유를 들었다.

돼지, 젓소, 한우, 양계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축종으로는 절반(50%)이 양돈을 꼽았으며, 한우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13%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축산경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료값 인상(46.8%)이었으며, 축산 오페수 단속 등 강화된 환경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농가도 20%로 나타나 환경강화에 따른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이 축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81%가 좋은 쪽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사육두수 확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상유지가 55%이었으며, 확대하겠다는 44%로 나타나 개방에 대한 불안심리를 여전히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양축심리 안정을 위한 축산정책 목표와 지원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개방후 돼지고기수입 크게 늘어

-도축장 경락가 크게 추락

지난 7월 개방 이후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돼지고기값이 수직 하락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농림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모두 4만9천톤으로 이중 수

급조절용 2만톤과 농산물교역협상 결과에 따른 최소시장접근(MMA)물량 1만4천톤을 제외한 1만5천톤이 시장개방 이후 국내에 들어왔다.

이같은 수입규모는 지난 한해동안 수급조절 및 MMA로 국내에 들어온 전체물량 3만8천톤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7월 이전 1백kg짜리 돼지 1마리당 18만원에서 19만원을 호가하던 산지가격이 지난 11월 12일에는 14만5천원대로 떨어지고, 도축장에서 경락되는 1kg당 지육가격도 2,700~2,800원에서 1,960원으로 추락,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돼지 모델 광고 뜬다”

-온세통신 등 유명사 광고 모델로 돼지 활용 “통신업체와 돼지가 웬 상관!”

아무 관계도 없는 두가지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연결해 화제를 뿌리는 광고가 있다. 세계전화 통신업체인 온세통신은 자사의 통신번호를 광고하기 위해 돼지를 광고모델로 사용하고 있는데, 돼지와 통신업체와의 이미지 연결은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높은 광고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온세통신은 자사의 통신번호 008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한달동안 자사의 서비스 번호를 사용하는 10,008명에게 고급 승용차 등 꾸밈한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광고소품이 돼지이다. 자사의 통신번호를 사용하면 꾸밈한 상품을 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명 연예인인 최민수씨가 돼지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온세통신 사용은 황제”라는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 돼지를 이용한 것이다. “광고소재가 워낙 기발하다보니 최민수씨가 돼지들과 나오는 광고하면 온세통신으로 인식한다”고 온세통신 홍보팀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같은 광고효과에 힘입어 온세통신은

홍보용 엽서를 제작하여 카페등에서 배부하고 있다고 한다.

돼지장기, 인간에 이식 위험

돼지의 심장, 간장, 신장 등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경우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이 있는 두 종류의 바이러스 DNA가 공통적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돼지 세포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 국립의학연구원의 미생물 학자 스토이 박사가 발표한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의하면 레트로 바이러스인 PERV-A와 PERV-B가 모든 종류의 돼지세포 속에 유전적으로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바이러스는 돼지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으나 이것이 사람에게 옮길 경우 해로운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돼지의 장기가 크기면에서 사람의 장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돼지의 장기를 사람환자에게 이식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나 돼지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육식이 암 유발, 증거 없다”

육식이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돼 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육식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케임브릿지대 마거릿 휘첼로 교수는 영국 의학전문잡지 브리티시 메디칼 최신호에 발표를 통해 “과일 샐러드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붉은 고기의 섭취량을 줄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휘첼로 박사는 총 3천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간의 역학조사 결과 육식과 암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채와 샐러드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은 암 발생률이 낮다는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휘첼로 박사는 고기를 태워먹는 경우에는 암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구제역 발생시 전두수 살처분이 국가 경제에 이익

-구제역 국제 워크샵서 대만 전문가 밝혀

돼지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보다는 감염돼지 전두수 살처분 정책이 국가경제에 이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방청천 중화민국 양돈사업발전협의회 비서장은 지난 11월 12일 축협에서 열린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 워크샵(농어민 신문사 주최)에서 대만의 구제역 발생 상황을 요약 설명하고 구제역 발생시 나라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 하는게 백신처리를 하는 것 보다 차라리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돼지지능 가축 중에서 2등

〈표〉 가축들의 지능랭킹

동물	지능지수
개	2.25±0.43
돼지	2.60±0.39
말	2.80±0.33
고양이	2.81±0.33
소	3.40±0.24
양	3.42±0.29
닭	3.67±0.40
칠면조	4.00±0.39

(지능지수 1 : 가장 영리함, 5 : 지능이 가장 낮음)

미국 오레곤 주립 대학교의 축산학 연구자들로부터 조사된 가축들의 지능 정도를 추정한 양케이트에서 개가 가장 지능이 높았고, 다음으로 돼지가 2 등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말, 고양이 등이 뒤를 이었고 마지막은 칠면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養豚**